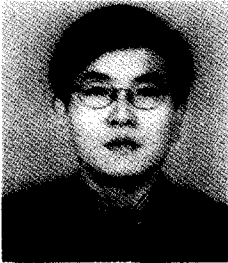


그린라운드와 환경직업교육훈련의 과제



이 병 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1. 세계기후협약과 그린라운드-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새로운 도전

세계화(globalization)는 세계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개별국가들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하는 국경을 뛰어넘는 규제조치가 환경분야에까지도 이르른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지구 생태계의 오염에 대한 방지와 관련된 국제적인 규제조항들의 윤곽이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은 - 일본과의 어업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 서있지 않은 듯하다. 특히 환경분야의 대비는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어서 각 분야, 그리고 전 사회의 참여주체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직업교육훈련에 대해서도 그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직업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기초능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는 있으나 아직 자연 생태계를 보전할 줄 아는 것이 기초적인 직업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근대화와 산업화가 일찍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성적인 작업도 진행중인 서구에서는 기존의 근대화모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사회경제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적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새로운 사회경제발전모델은 이제 많은 선진국에서 채택해가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패턴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진보에 대한 반성적인 노력과 대안적인 사회발전모델의 제시와 더불어 지구환경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회의들이 꾸준히 개최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회의들은 단순한 환경보호에 대한 상호협력방안강구를 넘어서 이제는 각국의 환경치수를 한정하려고 하는 시도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러한 지구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소위 '그린라운드(green round)'라는 개념이 이미 전문가들사이에는 화자(膾炙)되고 있다. 그린라운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국가들간의 협약이 있는데 이것이 세계기후협약이다.

세계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세계적인 기상이변, 사막화의 진전, 극지방의 해빙, 해수면의 상승 및 생태계의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 (김준한의, 1994: 71)으로 1992년 5월 채택되어 1994년 3월부터 발효되어 세계 174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세계기후협약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개별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항이다. OECD에 참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온실가스배

출에 대한 감축을 해야하며 우리나라도 2018년~2020부터는 의무적으로 선진국수준의 온실가스배출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형인 기초소재산업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동종 산업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이용이 크게 비효율적인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산업연구원, 1998: 11), 경제성장의 진폭도 매우 크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10~20년 앞을 내다보고 온실가스 저감의무를 약속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뒤따르게 된다.

얼마전 신문에 보도된 민간경제연구소의 진단에 의하면 세계기후협약사항을 준수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4%정도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창의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점진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며, 우선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이란 기업이 수동적으로 환경규제치 준수에 그치는 소극적인 대응방식을 탈피하여 자율적으로 사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경영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기업체가 환경친화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체에 환경관련전문가가 채용되기도 해야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영진에서부터 중간관리자,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생태학적인 마인드와 이를 직업생활에서 적극 실천할 수 있는 '생태학적인 자질(ecological competency)'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기업체의 생태학적 산업활동에 대해서는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문'에서도 강조되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생태학적 자질들이 직업적 행위의 전반에 걸쳐, 그리고 각자가 종사하고 있는 전문분야에 걸쳐 발휘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환경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2. 우리나라 환경직업교육훈련의 흐름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학교교육과 성인교육 두가지 현장(現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환경교육'은 환경부와 교육부의 공동협력아래 지구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환경보전에 관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4년부터는 취학전 아동에 대한 환경교육을, 1995년에는 제6차교육과정에 따라 1995년 중학교, 1996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선택교과로서 환경교육이 도입되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는 현재 환경관련학과의 실업계고등학교의 전공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에

1) "16. 환경친화적 산업활동 산업계는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의 사용을 효율화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태효율적 생산방식을 추구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생산기술을 개발·이용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금융계는 환경 친화적 투자활동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17. 기업책임의 확대

기업은 원료의 채취로부터 사용된 제품의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주기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야 한다.

18. 환경경영

기업은 주기적 감사를 통해 기업의 환경경영 상태를 평가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처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환경오염의 예방과 처리비용을 생산비용으로 내재화하여 환경친화적 경영을 정착시켜야 한다."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 선언문)

반해 소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은 다시 교육의 전문성에 따라 전문교육과 일반교육, 그리고 교육주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서는 제대로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실정이다.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방시시설업 등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환경공무원교육과 환경보전협회와 유독물관리협회에서 기업체의 환경관리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제외하고서는 아직도 제대로된 환경직업교육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은 매우 부족한데 현재는 기껏해야 환경교육교재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에 있어서도 환경직업교육훈련은 거의 황무지라고 할 수 있다. 기업체에서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환경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직업교육훈련은 아직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교육은 직업교육훈련과는 통합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환경직업교육훈련은 지구생태계의 보전이라는 주제가 의식(교양)교육의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거나 환경관련산업 전문인력양성과정 이 개설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교육내용을 독립시켜 문제로 다룰 수도 있어야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직업교육훈련과정전반이 생태학적 시각에 의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산업체에 단지 환경관련 전문가만을 배치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된 시각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직장인들이 생태학적인 의식과 생활태도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을 양성(연수)하는 직업교육훈련의 교육과정 전체에 생태학적인 관점이 스며들어야 한다. 환경분야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도 부족하지만 더 큰일은 일반 직장인들을 위한 '생태학적 자질(ecological competency)'을 습득해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3. 환경직업교육훈련의 과제 1 :

환경친화적 직종의 개발과 환경관련업무 전문가양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이 육성·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기술은 아직 선진국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기술이전도 아직도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산업도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 분야의 인력들이 전문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둘째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보호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은 산업체의 생산부분만이 아니라, 소비행태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까지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사회구조자체가 전반적으로 생태학적 질서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고용분야들이 창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전반이 환경보호망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환경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서구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을 위한 환경상담센터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의 생태학적 틀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환경산업육성계획과 사회 환경보호망의 구축과 이에 따른 인력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 선도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환경산업의 육성 및 사회 환경보호망구축과 관련하여 소위 환경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직종들이 새로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직종개발의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네가지의 환경친화적인 직종²⁾을 개발한 바 있다 (나영선의, 1998 : 106~111).

2) 환경상담요원, 환경친화책임, 생태학적(환경친화) 음식점, 생태학적 유기농업

4. 환경직업교육훈련의 과제 2 : 환경직업교육훈련교육과정의 구성

이미 환경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척된 선진국의 경우 환경직업교육훈련은 아래와 같은 네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실행되고 있다 (Jungk, D., 1995 : 255).

- 환경의식(가치)의 배양을 위한 교육
- 개별 직업과 관련된 환경 전문지식습득을 위한 교육

- 총체적 시각에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관점, 전문지식, 방법론적 자질 등에 대한 교육

- 직업생활 및 일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환경 행위능력

위의 네 가지 학습분야는 직업교육훈련과정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며 학습자가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이 적용될 수 있다.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직업을 분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범주가 있을 수 있다 (Volker, 1987: 14).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직업들은 환경보호와 직·간접의 영향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간접적으로 환경보호와 관련된 직업들

- 자신의 직업적 행위가 직접적으로 환경오염과 관련될 수 있는 직업들

- 환경보호를 위한 직업들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교육과정들은 환경친화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 환경직업교육훈련관련 연구의 과제

환경친화적인 사회·경제발전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부문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관련연구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생태학적 시각 또는 환경친화적인 시각과 직업교육훈련의 주제와 연결된 것은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연구에 있어서 생태학적 자질함양과 환경전문가 양성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연구들이 시급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대략 생각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할 수 있겠다.

첫째, 직업생활과 관련하여 어떠한 것이 '생태학적 자질(ecological competency)' 인지에 대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각 산업 및 직종별 환경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이 환경보호의 시각에서 재구성·개발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직업교육훈련 교육과정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이미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구체적 환경직업재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직업교육훈련에서는 현장실습이 중요한데, 현장실습시 환경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내용과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환경산업 및 환경보호망관련 직종과, 이에따른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섯째, 환경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연수에 대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일곱째, 환경직업교육훈련시 제공되어야 할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준한 외 (1994). 그린라운드와 한국경제. 서울:웅진출판.

나영선/이병준/이현정/고혜원(1998). 여성직업훈련 현황과 취업 유망직종의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산업연구원(1998). 21세기를 대비한 산업구조 개편 -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 선언문.

Jungk, D. (1995). Umweltlernen in der Berufsbildung. In: Arnold, R./Lipsmeier, A. (Hg.). Handbuch der Berufsbildung. Opladen: Leske+Budrich, pp.254-258.

Volker, P. (1987). Die Beruecksichtigung des Umweltschutzes in der Arbeit des Bundesinstitutes fuer Berufsbildung, Fingerle, K./Heid, H. (1987). Umweltlernen in

der beruflichen Bildung. Zeitschrift fuer Berufs- und Wirtschaftspaedagogik, Beiheft, H.7. Franz Steiner Verlag Wiesbaden GMBH: Stuttgart, pp.8-18.